

북·일 관계와 전자악단의 활용*

하승희**

이 글은 북·일 간 진행되었던 음악교류가 정치·외교적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북·일 음악교류의 핵심이었던 전자악단을 중심으로 음악교류를 살펴보고 교류의 의미를 도출하였다.

북·일 음악교류는 문화사절단을 통해 각국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외교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최우선적 목표였다. 기본적으로 북·일 간 음악교류는 북·일 국교정상화라는 정치적 목적을 전제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과 더불어 북한은 일본 대중음악 가수들의 방북공연 교류를 세계적 대중문화의 지표이자 새로운 음악도입의 명분으로 활용하였고, 북한 악단의 일본방문공연의 경우 대내적으로는 대외적 위상을 선전하고, 대외적으로는 자국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로 활용하였다.

북한은 기존 음악정책에 반하는 장르를 수용함으로써 대내외에 대담함과 유연성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또한 국교정상화에서 수교 상대국으로서의 면모와 함께 세계 보편적 음악과 견줄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북한의 전자음악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북·일 간 음악교류는 종국적 목표인 북·일 국교 정상화라는 정치적 이벤트에 앞서, 국가의 정치의도에 따라 조응하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음악교류, 음악정치, 북·일관계, 만수대예술단, 왕재산경음악단, 보천보전자악단, 전자음악

* 이 연구는 저자의 박사학위논문, “북한의 악단 변화연구(1945~2018)”(북한대학원대학교, 2019) 중 제4장 ‘김정일 후계자 공식화 시기(1980~1993)’ 부분을 재구성한 것임을 밝힙니다.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전문연구원.

1. 서론

북한은 국가수립 초기 냉전이라는 국제환경과 한국전쟁의 결과로 진영외교를 전개해 감에 따라 공식적인 대일본정책은 추진할 수 없었다. 하지만 스탈린 사후 미·소 간 평화공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북한과 일본은 관계개선을 모색하였고, 이후 탈냉전이라는 국제환경 변화에 직면하면서 북일 관계는 변모하기 시작하였다.¹⁾ 하지만 북한과 일본은 국교정상화를 위한 회담을 자국의 이익차원에서 접근하였고, 결국 북한 핵문제와 일본인 납치문제 등으로 양국 관계는 1990년대 국교정상화 논의 이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북일 간 교류는 진행되었다. 특히 음악교류는 개인 및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개인 차원에서 일본인이 방북하여 북한과의 음악교류에 직접 참여한 사례로는 일본 가수 오가사와라 미쓰코(小笠原美都子)와 일본 드러머 판키 스에요시(ファンキー末吉)의 사례가 있다. 먼저 일본 가수 오가사와라 미쓰코(小笠原美都子)는 1978년 11월 첫 방북에서 김일성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1980년 10월 오사카 음악계 인사들 및 예술인들로 이루어진 ‘일조음악예술교류회’를 조직하였다. 이후 1982년 개최한 제1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축전에 참가하였다. 이후 북한으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아 친선훈장 제1급과 제2급, 친선메달을 수여받을 정도로 음악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²⁾ 일본 드러머 판키 스에

1) 임재형, “북·일관계의 주요 결정요인과 특징,” 『분쟁해결연구』, 제2권 1호(2004), 108~111쪽.

2) “공화국민들이 잊지 못해하는 일본의 녀가수,” 『조선의오늘』, 2019년 12월 10일, <https://dprktoday.com/news/42585>.

요시는 2007년 2월 27일 북한을 방문해 북한 소녀들과 「몰음표 (Murumpyo: Question mark)」라는 북한 최초 오리지널 록 음악을 녹음하기 시작했다. 록 음악의 제작 및 녹음 과정을 담은 『평양 6월 9일 고등학교 경음악부 북조선 록 프로그램(平壤6月9日高等中學校.輕音樂部北朝鮮ロック.プロジェクト)』³⁾이라는 책을 2012년에 출간하기도 하였다.

국가 간 음악공연 교류는 중요한 협상 또는 회담에 앞서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친선관계를 더욱 공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정치·외교적 이벤트에 앞서 진행되면서 실제 양국 간의 중요한 정치·외교적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성사시키는 데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해왔다. 이에 외교적 협상에 앞서 진행되는 양국 간 음악교류의 성패는 이후의 정치·외교적 행사의 결과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영향력을 갖는다. 북한과 일본 또한 북·일 간 정치·외교적 관계의 변화에 앞서 음악공연 교류를 활용하였고, 실제로 국교정상화 논의가 활발했던 1991년 당시 두 차례의 상호 음악공연 교류가 진행되었다.

북·일 관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정치·외교사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북·일 관계를 외교 및 정책적 측면에서 다룬 연구,⁴⁾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과 관련된 연구,⁵⁾ 일본 납치문제에 대한

3) ファンキ-末吉, 『平壤6月9日高等中學校.輕音樂部 北朝鮮ロック.プロジェクト』(東京: 集英社インターナショナル, 2012).

4) 김태운, “북한의 대일정책 변천과 그 특징에 관한 연구,” 『정치정보연구』, 제7권 2호(2004), 108~134쪽; 정영철, “북일관계의 과거와 현재: 명분과 실리의 외교전략,” 『북한연구학회보』, 제9권 1호(2005), 157~184쪽; 신정화, “북한의 국가전략과 북일관계,” 『북한연구학회보』, 제12권 2호(2008), 157~177쪽; 신정화, “김정일 정권의 대일 정책: 『로동신문』과 『조선신보』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시민윤리학회보』, 제24권 1호(2011), 177~194쪽; 신정화, “일본 외교의 변화와 대북정책: 중핵 국가로서의 영향력 확대,” 『일본연구학회보』, 제38권(2013), 277~298쪽; 진희관, “북한의 대일인식과 재일총련 정책 변화 연구,” 『로동신문』 기사목록(1946~2010)

연구⁶⁾ 등이 있다. 기존 연구들은 북·일 관계의 주요 정치·외교사적 사건들과 대외환경 및 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역사적 맥락에서 다양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선행연구들은 북·일 관계의 주요 사건과 역사적 흐름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해당 사건이 갖는 특징 분석과 함의에 대해 풍부한 해석을 제공해준다. 정치·외교적 사안 외에도 북·일 간 다양한 분야가 존재하지만, 주로 주요하게 진행된 회담 및 교섭 과정 위주의 사건 중심 분석, 정치군사외교 분야에 주제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이에 북·일 관계를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보며 논의를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

이 글은 북·일 간에 진행되었던 그간의 음악교류를 분석하여 북·일 간 정치·외교적 관계 속에서 ‘음악’이라는 매개가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그동안 북·일 간 음악교류는

분석과 50년대 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제25권 1호(2013), 361~396쪽; 박창건,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북일관계의 변화: “상황적 경직화”에서 “전략적 유연화”로 전이된 교섭 외교,” 『한국과국제정치』, 제31권 2호(2015), 29~52쪽; 이기완, “김정은 정권의 대일 접근과 북일관계,” 『국제정치연구』, 제19권 2호(2016), 177~198쪽; 조은일, “일본 아베 정권의 대북정책: 현황과 전망,” 『한일군사문화연구』, 제27권(2019), 87~113쪽; 진진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일본의 대응전략 분석,” 『한일군사문화연구』, 제29권(2020), 5~29쪽.

5) 이면우, “북일간의 수교교섭 전망: 제1회 포괄병행협의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일군사문화연구』, 제4권(2006), 163~191쪽; 손기섭, “일본의 대북한 국교교섭의 정책결정: “실력자정치”에서 “관저정치”로,” 『일본연구논총』, 제25권(2007), 33~70쪽; 진진호,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과 북한의 체제전환,” 『국제정치연구』, 제21권 2호(2018), 131~155쪽.

6) 오일환, “북한 핵·일본인납치 문제 관련 기술의 분석,” 『한일관계사연구』, 제30권(2008), 351~384쪽; 임상순, “납치문제에 대한 일본의 전략과 북한의 대응,” 『현대북한연구』, 제16권 2호(2013), 41~85쪽; 최은미, “북일 납치문제에 대한 아베내각의 인식 및 방침 변화 분석: 「소신표명연설」과 「시정방침연설」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25권 4호(2019), 109~138쪽.

민간단체, 재일교포 등 다양한 주체들을 중심으로 많은 교류가 이루어져왔다. 이 중 대표성을 띠는 북일 음악교류를 분석하기 위해 양국 간 음악교류가 가장 두드러지는 장르인 전자음악을 중심으로 음악교류에 참여했던 북·일 대표 대중가수(또는 그룹)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북·일 간 음악교류의 핵심이었던 전자악단의 활용 양상을 살펴보고 교류의 의미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그동안 정황상으로만 알려져 있던 북·일 간 전자음악 교류를 다양한 사료를 통해 밝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2. 1970년대 북한의 전자음악 시도

북한은 1967년 김일성이 수령으로 추대되고 수령 중심 유일체제를 강조하며 당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 등 김일성에 대한 우상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하였다.⁸⁾ 이와 함께 음악·예술 분야에서도 우상화를 위한 선전선동작업이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전자악기의 활용과 함께 일본과의 전자음악 교류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나타난다.

전자악기는 1964년 전자음악합성기가 처음 제작된 이후부터 활발하게 보급되었고, 이때 전자악기는 서양악기 기준으로 되어 있어 이를 악기 개량을 통해 발전시켰다고 주장하였다.⁹⁾ 전자악기의 부분적 적

7) 북한의 경우 북한 공식매체에서 '본보기악단', '국보급악단'으로 지칭하는 악단 중 북·일 교류의 주체가 된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8)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력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430~436쪽.

9) 북한의 전자종합민족악기 '주체-5형'은 평양악기공장 연구집단이 만들었으며, 이는 민족악기와 양악기 음색을 낼 수 있으며 음색조절기를 통해 민족악기 소리와

용에서 음색에 민족 악기 효과를 넣는 등의 음향 활용을 조선식 음악이자 전자악기를 조선음악에 복종시킨 것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김정일은 전자음악의 활용 배경에서도 “세계적으로 전자공업이 발전함에 따라 전자기술을 리용한 여러 가지 전자악기가 나오게 되었으며 전자악기를 가지고 하는 전자음악이 하나의 세계적 추세로 발전하고 있다. (중략) 우리 나라에서도 세계적 추세에 맞게 전자음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시 북한의 전자음악 도입은 세계적 추세에 따른 양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69년 북한은 기존에 있던 국립교향악단, 조선술영화촬영소 등의 여러 단체 중 여성기악연주자들을 발탁하여 ‘녀성기악중주조’를 창립하였다. 김정일은 김일성이 관람하는 첫 국가행사 공연을 진행할 예술단을 만들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녀성기악중주조는 핵심이 되고 모체가 될 것”¹⁰⁾이라고 밝히며 국가중창단 소속 녀성기악중주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김정일은 이 악단을 일반 예술단체와는 차별화된 연주단체로 발전시키려 했으며,¹¹⁾ 이후 ‘녀성기악중주조’는 국가중창단으로 확대되었고, 1969년 9월 27일 첫 국가행사 공연에서 만수대 예술단 소속 ‘녀성기악중주단’으로 새롭게 명명되어 활동하게 되었다.

초기 녀성기악중주단은 11명의 여성으로 구성된 서양악기 편성¹²⁾

농현이 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 이후 김정일인 ‘충성-5형’으로 이름을 수정하였으며, 민족악기에 전자악기를 배합하여 이용한 것은 1968년 10월 25일 예술영화 〈마을사람들속에서〉의 관현악에 전기종합악기와 첼로를 넣을 데 대한 지시가 이루어지면서부터다. 녀성기악중주를 지도하면서 전자종합악기를 구성에 넣도록 하기도 하였다. “전자악기를 조선음악에 복종시킨 우리 식 전자음악,” 『조선예술』, 제10호(1992), 27~28쪽.

10) “본보기예술단체의 핵심으로 꾸려주시여,” 『조선예술』, 제9호(2009), 28쪽.

11)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음악의 원로 김정일』(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8), 338쪽.

<표 1> 공훈녀성기악중주단 엘렉톤 활용 관련 김정일 교시

현지 지도	내용
1970.11.14	“녀성기악중주 <눈이 내린다>에서 엘렉톤독주는 촌티가 납니다. 이미 혁명가요 <남산의 푸른 소나무>를 연주할 때 들었던 귀맛이 있기 때문에 엘렉톤을 지금 하는 식으로 연주하여서는 안됩니다. … <눈이 내린다>는 오늘밤안으로 엘렉톤연주부분을 수정보충하여야 하겠습니다.”
1971.02.28	“앞으로 엘렉톤은 기악중주에 복종시켜 하고 독주는 하지 말자고 합니다. 작곡가들이 엘렉톤연습곡을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그 악기의 색깔을 연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앞으로는 민족권현악에서도 엘렉톤을 써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1971.04.03	“노래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이나 <끝없는 이 행복 노래부르네>는 민요독창곡인것만큼 반주에 엘렉톤을 쓰는 경우에도 민족적인 색깔이 나오도록 하여야 하겠는데 지금은 엘렉톤을 녀성기악중주에서 쓰는것과 같은 방법으로 쓰기 때문에 민족적인 색깔이 없어집니다.” “엘렉톤도 양악기의 한가지인것만큼 그것을 민족기악반주에 받아들일 때에는 녀성기악중주를 할 때처럼 써서는 안됩니다.”
1971.04.06	“녀성중창 <발갈이노래>의 반주에 엘렉톤을 넣어 다시 들어보았는데 우리 노래에는 잘 맞지 않습니다.”
1971.05.08	“녀성기악중주 <수령님의 높은 뜻 붉게 피었네>에도 엘렉톤을 쓴 것을 보면 최근에 기악중주에 엘렉톤을 쓰는 것이 도식화되고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 곡이건 우리 나라 곡이건 녀성기악중주곡을 만들라는 과업을 주면 첫 짚은 의례히 엘렉톤에 선율을 주는데 이런 것이 편곡에서의 도식입니다.”
1972.04.14	“엘렉톤을 지내 많이 쓰는것같습니다. 엘렉톤을 녀성기악중주에서도 지내 두드러지게 썼습니다. 엘렉톤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빛깔이 나지 않습니다.”
1972.05.09	“엘렉톤연주가가 아직도 연습이 부족한데 눈을 감고도 연주할수 있도록 준비되어있어야 합니다. 엘렉톤연주가의 기량이 낮고 편곡도 잘하지 못하였습니다. 엘렉톤연주가가 악기의 특성을 잘 살리지 못하고있습니다.”

자료: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음악의 원로 김정일』(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8), 327~328쪽.

- 12) 악기편성은 서양악기로 구성되어 있다. 악기는 제1바이올린, 제2바이올린, 첼로, 콘트라베이스, 플루트, 클라리넷, 피아노, 목금(실로폰) 등이다. 이후 대중성을 나타내는 ‘현대적 미감’을 고려해 전기종합악기와 하프, 피아노를 추가하였고, 목금, 첼금과 같은 타악기도 포함하였다.

의 클래식 실내악 악단이었다. 북한에서는 1970년부터 전자악기 ‘엘렉톤(전기종합악기)’을 처음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김정일은 몇 차례 교시를 통해 녀성기악중주단의 엘렉톤 활용방향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례가 있다(<표 1> 참조).

이처럼 김정일은 1970년부터 녀성기악중주조에 엘렉톤연주가를 영입하여 엘렉톤의 효과를 활용하고자 당시 생소한 악기였던 엘렉톤을 녀성기악중주에 편성하고 직접 지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1972년까지는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엘렉톤의 독주는 다른 악기와 음색이 어우러지지 못했고, 엘렉톤을 편성하여 민족적인 색깔을 내기 원했지만 특유의 전자음이 도드라져 이 또한 구현되지 못했던 것이다. 또한 엘렉톤을 자주 활용하는 것에 대해 도식화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경계한 이후 엘렉톤의 활용까지 저조해지는 상황이 나타났다.

하지만 엘렉톤은 만수대예술단의 일본방문공연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하였다. 만수대예술단은 1973년 7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50여 일 동안 일본에 체류하며 여러 도시에서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와 음악무용종합공연을 진행하였다.¹³⁾ 만수대예술단은 일본 조선문화교류협회(日本朝鮮文化交流協會)와 아사히신문사(朝日新聞社)의 공동주최로 일본에 초청되었다. 예술단은 도쿄를 시작으로 나고야, 오사카, 히로시마, 후쿠오카, 교토, 고베 등 각 지에서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 공연 20회, 음악무용종합공연 21회 등 총41회의 공식공연과 재일동포들을 위한 특별공연과 시연회를 포함해 총 60회의 공연을 진행하였다.¹⁴⁾

13) “주체예술은 인류가 쌓아올린 예술탑의 정점에서 찬연히 빛나는 황금별” 『조선예술』, 제11호(1973), 17쪽.

< 표 2 > 1973년 만수대예술단 일본 공연

공연 날짜	장소	공연 횟수
08.02~08.06.	도쿄(東京) 문화회관	5일간, 7회 공연
08.08.~08.11.	나고야(名古屋) 시민회관	4일간, 6회 공연
08.13~08.18.	오사카(大阪) 페스티벌홀 (フェスティバルホール)	6일간, 8회 공연
08.23~08.25.	히로시마(広島) 우편저금회관홀	3일간, 4회 공연
08.28~08.31.	후쿠오카(福岡) 스포츠센터	4일간, 5회 공연
09.03~09.04.	교토(京都)회관	2일간, 3회 공연
09.05~09.07.	고베(神戸) 국제회관	3일간, 4회 공연
09.11~09.13.	도쿄(東京) 체육관	3일간, 4회 공연

자료: 모리 토모오미(Tomoomi Mori), “북일 문화교류: 1973년 만수대예술단 일본 순회 공연 사례” SNUAC다양성+Asia, 4호

북일 국교정상화의 움직임은 1971년 11월 16일 초당파적 일본 국회 의원들의 북일우호촉진의원연맹 조직을 시작으로 양국의 친선과 국교 정상화를 요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후 1972년 2월 8일 북일노동자교류연대연락회의, 8월 9일 북일체육촉진협회가 창립되었고,¹⁵⁾ 1972년 9월 25일 조선대외문화련락협회와 일조문화교류협회가 문화교류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면서부터 본격적인 북·일 간 교류가 시작되었다. 이 합의서는 양국의 각계 인사들은 물론 문화, 예술, 교육, 보건, 체육, 출판, 통신, 방송 분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¹⁶⁾ 이러한 합의에 근거해 만수대 예술단의 공연이 성사되었다.

14) “찬연한 빛을 뿌리는 우리의 주체예술! 관람자 20만명,” 『로동신문』, 1973년 9월 22일.

15)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1974)』(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74), 406쪽.

16) “조선대외문화련락협회와 일조문화교류협회 사이의 문화교류에 대한 합의서가

<표 3> 만수대에슬단 일본방문공연 음악무용종합공연 시연회 레퍼토리
(1973.8.2.)

구분	형식	제목
1부	합창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
	노래	번영하라 조국이어
	노래	혁명가
	무용	사과풍년
	무용	부채춤
	무용	3인무
	무용	풍년맞이
	무용	샘물터에서
	여성중창조	피바다 중 <일편단심 붉은 마음 간직합니다>
	무용	조국의 진달래
2부	합창	내나라
	합창	천리마대진군의 노래
	무용	키춤
	무용	양산도
	여성2중창	팔경가
	여성2중창	노들강변
	여성2중창	명승가
	무용	쟁강춤
	무용	복동과 처녀
	무용	농악무
	공훈남성중창조	버가을 하러 갈 때
	공훈남성중창조	내조국 한없이 좋아라
	공훈남성중창조	충성의 한길로 가고가리라
무용	눈이 내린다	

자료: “도교의 하늘에 높이 올려퍼진 <김일성장군의 노래>,” 『로동신문』, 1973년 8월 5일.

조인되었다,” 『로동신문』, 1972년 9월 26일.

김일성은 북·일 수교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요즘 일본인민들과 진보적인 계층들속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선린관계를 맺기 위한 운동이 광범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234명의 여야당출신국회의원들을 망라한 <일조우호촉진의원련맹>이 나왔습니다. 또한 지방의회들에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국가관계를 맺을 것을 요구하는 결의들을 채택하였습니다. (중략)조선인민과 일본인민이 공동으로 성과 있는 투쟁을 벌린다면 우리 두 나라사이에 국교를 수립할수 있습니다. 조일 두 나라사이에 국교관계가 수립되면 일본정부가 우리 나라에 대하여 취하여 온 이때까지의 그릇된 정책들이 무효화될것입니다. 우리는 국교가 수립되기 이전이라도 두 나라사이에 우호적인 관계를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여러 가지 형편을 보아 조선과 일본 두 나라사이에 국교를 맺는데는 일정한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본과 국교를 맺기전이라도 가능한 범위에서 인사래왕을 많이 하며 경제, 문화적인 분야에서 교역과 교류를 널리 진행할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¹⁷⁾

이를 통해 당시 북·일 수교를 위한 움직임과 함께 김일성의 북·일 관계 개선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김일성은 만수대예술단의 일본 방문공연 진행 이후 만수대예술단의 공연 의의에 대해 “일본인민과 직접 접촉하여 조일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우호친선을 깊이한 것”¹⁸⁾이라고 언급하며 만수대예술단을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을 위한 문화

17)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면한 정치, 경제정책들과 몇가지 국제문제에 대하여: 일본<요미우리신문> 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1972년 1월 10일),” 『김일성전집』, 제48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3), 176-177쪽.

18)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홈페이지: <http://www.chongryon.com/ss/comp/w14/w14.html>, “일본 《미라이샤》 편집국장을 만나주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1973.9.30.).

사절단으로 활용하고자 했음을 나타냈다.¹⁹⁾

1973년 9월 21일 김정일은 일본방문공연에서 돌아온 만수대예술단
단원들에게 한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다음해에도 다른 나라 방문공연전투를 계속 벌려야 하겠습니다. 일본
에는 다음해 5월이나 10월에 예술단을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일
본의 아사히신문사뿐만아니라 다른 여러 단체들에서도 우리 나라 예술단을
초청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 예술단이 다음해 5월에 와달라는 단체들도
있고 10월에 와달라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다음해에
총련에서 중요한 사업이 제기되기 때문에 일본에 예술단을 한번 더 보내
라고 교시하시였습니다. 우리 예술단이 한번 더 가서 온 일본땅을 뒤흔들
어놓아야 합니다. 일본에 가서 한 40일동안 있으면서 큰 도시들에 보름씩
놀러앉아 공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해에는 일본에 혁명가극 <꽃파
는 처녀>와 <금강산의 노래>를 가지고 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하략)²⁰⁾

이처럼 김정일은 예정되지 않은 내년도 공연을 준비할 만큼 만수대
예술단을 통한 북·일 간 음악교류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결과에 이어 계속적으로 성과를 이어가려는 모습이 나타났다. 다음은
만수대예술단이 일본방문 공연 당시, 훌륭한 엘렉톤 연주로 일본 엘렉
톤 생산 관계자들에게 악기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에 대해 자평한

19) 모리 토모오미(Tomoomi Mori) 또한 만수대예술단 공연 진행을 위한 일본방문
조사단이자 만수대예술단 부단장 리호남이 기자회견에서 “일본 공연은 대규모
가 될 것이며 가장 우수한 작품을 가져오고 싶다”고 언급한 것을 통해, 만수대예
술단은 이 교류를 북일국교정상화 교섭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두었으며, 리호남의 발언은 “대(對)일본 관계에서의 만수대예술단의 역할을 중
시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모리 토모오미, “북일 문화교류: 1973년 만수대예술단
일본 순회 공연 사례,” 『SNUAC다양성+Asia』, 제4호.

20) 김정일,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온 만수대예술단 성원들과 한 담화(1973년 9월
21일),” 『김정일전집』, 제2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8), 309~310쪽.

내용이다.

그때 예술단은 일본에서 생산하는 엘렉톤을 쓰기로 하고 그 악기를 가지고가지 않았다. 일본에 도착한 우리 나라 예술인들은 엘렉톤을 생산하는 회사에 찾아갔다. 그들은 악기를 내어주면서 한번 공연에 쓰는데 일본돈으로 수십만엔을 낼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만수대예술단의 공연을 보고난 그 회사의 사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것처럼 혁명적이고 고상하고 황홀한 예술에 엘렉톤이 그렇게도 훌륭하게 리용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돈으로 흥정한 자신들이 수치감을 느낀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도쿄에서는 물론 지방도시들에 있는 자기 회사의 지사들에 만수대 예술단이 순회공연차로 도착하면 제일 좋은 엘렉톤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되 무상으로 내주라고 지령을 떨구었다. 이것은 우리의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음악을 연주하는 엘렉톤에 대하여 일본인민들이 얼마나 탄복하였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실례에 불과하다.²¹⁾

하지만 만수대예술단의 일본방문 공연을 다룬 어느 매체에서도 만수대예술단의 녀성기악중주단의 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레퍼토리에서도 자세히 언급되지 않았다. 공연관련 기사는 녀성중창조, 무용, 혁명가극 등의 반향기사가 대다수였다.

이후 1985년 창립한 보천보전자악단이 나오기 전까지 만수대예술단 녀성기악중주조의 악기편성에서도 엘렉톤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녀성기악중주조의 엘렉톤 활용은 악기활용과 음악 구현 등의 문제에 따라 실제 공연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시도에 그쳤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의 내용은 악기의 무상제공을 악단의 뛰어난 연주 실력으로 미화시키며 1980년대 일본으로부터 엘렉톤악기의 수입 과정을 정당화하고자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후 만수대예술단

21)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음악의 원로 김정일』(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8), 328~329쪽.

녀성기악중주조는 1979년 9월 27일 공훈칭호를 수여받고 ‘공훈녀성기악중주조’라는 명칭을 공식화하였다.²²⁾ 이러한 조치는 당시 녀성기악중주조가 만수대예술단 소속으로서 일본 공연을 포함한 활발한 해외 공연을 통해 명실상부 국가 대표 대외친선악단으로서 역할을 높이 평가한 결과로 볼 수 있다.

3. 1990년대 일본 전자악단의 방북공연과 북한 전자악단의 공식 등장

1) 일본 전자악단 ‘SHOW-YA’의 북한 방문공연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북·일 간 관계개선에 대한 움직임과 국교정상화 논의가 일기 시작했다. 1990년 9월 28일 북한의 조선로동당, 일본의 자유민주당과 일본사회당의 3당 공동선언이 채택된 이후, 12월 11일 북·일 간 통신회선이 정식 개통하며 국교정상회담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갔다. 이후 1990년 11월과 12월 3차에 걸쳐 북·일 국교정상화를 위한 예비회담이 베이징에서 진행되었고, 3차회담에서 북·일국교정상화를 위한 본회담을 1991년 1월 하순부터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²³⁾

3당 공동선언 이후 양국에서는 우호적 여론이 고조되었고, 북·일 국교정상화 실현을 위한 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북·일 간 상호이해 목

22) “만수대예술단 절찬속에 공연,” 『음악세계』, 통권 13호(1994), 29쪽.

23)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1991)』(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91), 315~316쪽.

적의 교류가 발전되는 중요한 계기로 만들려는 분위기가 나타났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일조우호문화교류모임’과 같이 총련 본부 주최의 교류모임이 진행되기도 했다.²⁴⁾ 이후 양국의 친선 분위기가 조성되며 북·일 간 공식적인 음악 교류가 진행되었다. 당시 일본의 유명 여성 전자악단인 ‘쇼야(SHOW-YA)’를 중심으로 한 전자악단들의 방북 공연이 성사된 것이다.

그룹 ‘쇼야’는 1985년 공식 데뷔한 일본의 여성 록 밴드이다.²⁵⁾ 이 그룹의 음악은 헤비메탈, 하드 록으로 분류되는데, 김정일은 저서 『음악예술론』에서 “오늘 세계적으로 대중음악분야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의 기형적인 생활, 썩고 병든 정신상태를 반영한 재즈, 로크를 비롯한 반인민적이며 퇴폐적인 음악이 만연되어 선율을 괴벽하게 기형화하거나 단조로운 리듬의 무미건조한 부속물로 만듦으로써 선율을 농락하며 모독하고 있다”²⁶⁾라고 비난하는 음악 장르 중 하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 록밴드의 이례적인 북한 공연은 모순적이다. 1991년 일본전자악단의 방북공연은 북한 내 문화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 MBC에서 공개한 당시 쇼야의 공연 장면 중 내레이션에서는 “귀를 때리는 소음과 같은 로크리듬의 음량, 그리고 요란하기 짝이 없는 일본 록그룹의 율동과 무대의상, 현란한 조명에 평양 만수대예술극장의 객석은 일편 충격과 당혹감에 휩싸였습니다”라고 평하였으며, 청중 반응에서도 귀를 막거나 인상을 찌푸리는 모습이 비취지

24) “일조국교정상화를 위한 운동을 촉진시키자,” 『조선신보』, 1991년 6월 24일.

25) 이 그룹은 1998년 밴드 활동을 종료하고 이후 각자 솔로 활동을 했다. 데뷔 20주년 2005년을 맞아 원년 멤버 5명이 재결성하였고, 2020년 데뷔 35주년을 맞이하였다. SHOW-YA 공식홈페이지 <https://show-ya.jp/biography>.

26) 김정일, 『음악예술론』(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53쪽.

며 생소한 음악에 대해 낯설어하는 모습을 보였다.²⁷⁾

쇼야의 방북공연은 ‘노스코리아의 러브&락앤롤(ラブ&ロックンロールイン・ノース・コリア)’이라는 이름으로 만수대예술극장에서 1991년 6월 10일과 6월 11일 이틀간 진행되었다. 이 공연에는 쇼야 외에도 다양한 전자악단이 함께 참여했다. 북한의 공식 자료에서는 참여 악단들을 ‘가루메사이아악단(GIL-MEESSIAH)’, ‘사꾸라, 사꾸라악단(さくらさくら)’, ‘쇼야악단(SHOW-YA)’, ‘프라네트아스악단(プラネットアースの四バンド)’ 등으로 소개했고, 『조선신보』에 따르면 미국인 보컬리스트 ‘스테파니(ステファニー)’가 추가로 참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방북 공연에 참여한 전자그룹 중 앨범을 발매한 대중적인 그룹은 쇼야가 유일하였다.²⁸⁾ 이를 통해 쇼야가 일본을 대표하는 대중 악단으로 참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의 공연 소식에 대해서는 조총련기관지 『조선신보』에서 자세하게 다루었지만, 북한 내 공식매체에서는 『조선음악년감』과 『평양신문』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1992년 『조선음악년감』에서는 “일본여성 신세기전자악단 우리 나라 방문”이라는 제목으로 주요 내용을 자세하게 보도했다. 이들은 공연 진행 외에도 평양 체류 기간 동안 주요 기관 참관 및 모임, 공연관람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²⁹⁾ 『평양신문』은

27) 일본 여성 헤비메탈그룹 북한 공연, 1991 <https://www.youtube.com/watch?v=hj1N5H3gdgA&t=5s>.

28) 당시 방북행사에 참여했던 나머지 그룹들의 관련 정보는 찾을 수 없었다.

29) 이 악단들은 6월 9일 병상관, 모란봉, 평양제1백화점, 평양지하철도, 6월 9일 룡북고등중학교, 6월 10일 만경대학생소년궁전, 평양국제문화회관, 청춘거리, 옥류관, 6월 11일 평양음악무용대학, 조선혁명박물관, 천리마거리, 비파거리를 참관했으며, 6월 12일에는 인민문화궁전에서 상복모임을 진행, 만수대예술단 출연 공연을 관람했다. 박순녀·김초옥, 『조선음악년감(1992)』(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4), 448쪽.

일본여성전자악단 방북소식에 대해 연주단의 도착, 공연진행, 귀국 소식만을 단신으로 보도했다. 조선예술교류협회의 초청에 의해 니시유지(西雄二)를 단장으로 하는 일본여성전자악단의 6일 평양 도착소식과 7일 청류관에서 진행된 조선예술교류협회 마련 연회,³⁰⁾ 10일과 11일 평양에서 진행된 일본여성전자악단의 공연에 시내 예술인들과 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한 것,³¹⁾ 일본여성전자악단이 13일 만경봉호 배편으로 귀국하였다는 단신 보도³²⁾ 등 총 3건의 기사가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하여 단신으로 보도하였다.

하지만 북한의 정론지 『로동신문』에서는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신문에 일본 대중가수들의 방북 관련 보도가 없었던 것은 대내에 공개하려는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북·일 수교 성사를 위해 마련된 중요한 행사였음에도 김정일의 문예정책에 반하는 ‘쇼야’의 음악적 장르에 대한 부담이 무(無)보도 현상으로 이어진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이 통제하는 음악 장르가 북·일 문화교류에서 친선교류라는 명분으로 공연될 수 있었던 것은 인민들을 대상으로 선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음악 장르가 대내에 미칠 파장을 염려할 필요가 없었고, 문화교류를 성사시킨 것만으로도 정치적 목적을 달성시켰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공연은 쇼야가 소속된 마스터웍스(Masterworks) 프로덕션의 니시유지(西雄二) 사장이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연에서 왕재산경음악단이 함께 출연하여 합동공연을 펼쳤다. 왕재산경음악단은 무용조가 포함된 종합예술단의 성격으로, 이 악단의 밴드 또한 전자악기를

30) “일본여성전자악단 도착,” 『평양신문』, 1991년 6월 8일.

31) “일본여성전자악단 공연 진행,” 『평양신문』, 1991년 6월 12일.

32) “일본여성전자악단 귀국,” 『평양신문』, 1991년 6월 14일.

<표 4> ‘일본여성신세사이자전자악단’ 방북공연 주요 레퍼토리(1991)

악단명	레퍼토리
가루메사이아악단 (GIL-MEESLAH)	상가9번지
	소란스러운 학교
	오늘밤의 어리석은 소년
	조니 큰일이다
사쿠라, 사쿠라악단 (さくらさくら)	미모의 녀인
	환영
	달콤한 때
	엄마 걱정 말아요 딸들은 알고 있다
쇼야악단 (SHOW-YA)	이 밤의 아이들
	우는 아이
	나는 당신에게 사랑을 바치고 싶어요
	숨어 버리다
프라네트아스악단 (プラネットアースの四バンド)	룩크
	지구행성
	하룻밤의 일
	허무한 사랑
	나를 잡으세요
	날아갔소
왕재산경음악단 합동공연	땅의 발톱
	녀성은 꽃이라네(조선곡)
	우를 견고 보자
	룩크

자료: 박순녀·김초옥, 『조선음악년감(1992)』(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4), 448쪽.

<그림 1> 일본 록밴드 쇼야(SHOW-YA)의 평양공연(1991)



자료: “日本のロックバンドが初公演,” 『조선신보』, 1991년 6월 24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 악단은 1983년에 데뷔하였지만 대내에 공식적으로 공개된 것은 그 이후이다. 왕재산경음악단이 공식매체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것은 1989년 6월 30일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주최국 프로그램에서 왕재산경음악단 종합공연 관련 『로동신문』의 보도에서다. 이때부터 왕재산경음악단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개되었다. 다음은 북한의 『조선음악년감(1992)』에 기록된 일본여성전자악단의 방북공연 주요 레퍼토리 목록이다.

1991년 당시 공연은 북한 내 ‘일본여성신세사이자전자악단’이라는 이름으로 공연 내용이 소개되었다. 이 공연의 레퍼토리는 다음과 같이 북한식 표기법으로 바뀌어 발표되어 레퍼토리의 원제목은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MBC에서 보도한 영상에 따르면, 쇼야는 일본에서 실제 활동 당시 공연했던 의상과 콘셉트를 그대로 공연 한 것으로 보아, 방북 공연에서도 이들의 음악 스타일을 가감 없이 공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음악이 북한 내에서 공연될 수 있었던 것은 다분히 북·일 관계에서의 우호친선 차원에서 상대의 대중문화를 이해하는 차원, 그

리고 당시 북한 내 파격으로 제시했던 전자음악 중심 악단인 ‘왕재산 경음악단’과 ‘보천보전자악단’의 등장을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북한은 이를 통해 해외의 유명 가수들을 통해 현재 세계 대중음악의 흐름을 반영한 음악 장르가 북한 내에도 있음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2) 보천보전자악단의 일본방문 공연

일본 대중악단들의 방북공연 이후, 조선신보는 각 지 의회에서 북·일 국교 정상화 요구 및 조기실현에 대한 의견서 만장일치 채택과 함께 일본국민여론을 계속해서 보도하며 북·일 국교정상화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했다.³³⁾

1991년 7월 13일자 조선신보 사설 ‘보천보경음악단을 혈육의 정으로 맞이하자’³⁴⁾에서는 공연에 대해 “광범한 일본인민들에게 우리 조국, 공화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주고 조일 두 나라 인민간의 우호친선의 분위기를 높이며 조일간의 관계정상화를 촉진”할 것이며, “일본의 정계, 재계, 언론계를 비롯한 각계층의 유력한 인사들이 공연을 봄으로써 우리 조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조일 관계개선의 조속한 실현에 발벗고나서도록 하는데 각별한 힘을 들릴 것”이라고 밝히면서 총련 각급 기관 및 일군들과 동포들에게 공연 사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33) “일조국교정상화요구의 일본국민여론을 반영,” 『조선신보』, 1991년 6월 24일; “일본의 수도 도쿄 도의회가 결의채택,” 『조선신보』, 1991년 7월 13일.

34) “사설: 보천보경음악단을 혈육의 정으로 맞이하자,” 『조선신보』, 1991년 7월 13일.

이후 1991년 7월 21일 북·일 우호친선관계 촉진을 위해 ‘전국일조우호촉진의원련맹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해, ‘조일우호친선협회’ 주최 연회가 목관관에서 일본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체의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때 보천보전자악단의 공연이 진행되었는데, 일본전국 각지 의원들의 앞에서 악단의 공연을 선 공개함으로써 북·일 친선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이들의 활약을 추동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해 9월의 3당 공동선언이 나온 이후 일조우호의 여론이 날을 따라 고조되는 속에서 약동하는 조선의 모습과 더불어 이렇게 훌륭한 공연을 보게 되었으니 일조친선을 위해 힘써야겠다는 생각이 났습니다.³⁵⁾

1985년 6월 4일 만수대예술단을 전신으로 창립한 보천보전자악단은³⁶⁾ 선율을 강조하며 ‘조선장단’을 통한 ‘민족적정서’에 맞는 연주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세계 여러 나라의 음악적 요소를 받아들이고 이를 ‘인민의 민족적 감정’에 맞게 수정하여 ‘현대적 미감’에 맞게 발전시키는 것이 악단의 목표이다. 북한은 한 두 대의 신시사이저, 전기 종합악기, 전기기타와 타악기로 구성된 다른 나라의 일반적인 전자악단의 소 편성에 대해 특권계층에 지배되어 있고 사람들의 건전한 정신 세계와 관련 없는 광란적 리듬 위주로 되어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에 보천보전자악단은 4대의 신시사이저, 3대의 전기종합악기, 2대의 전기기타, 1대의 베이스기타, 1대의 타악기, 피아노까지 포함하는 큰 규모

35) 〈전국일조우호촉진의원련맹대표단 성원 시마네현의회 다께다니 히로시의원 공연소감〉, “일본방문공연을 우리의 힘으로 꼭 성공시키자: 보천보전자악단 공연을 관람,” 『조선신보』, 1991년 7월 25일.

36) “내외의 커다란 관심속에 보천보경음악단의 일본공연 박두,” 『조선신보』, 1991년 8월 28일.

의 독특한 악기 편성 체계를 특징으로 하며 ‘조선적 음색’을 위해 민족 악기를 포함하여 전기악기 편성의 틀을 깨뜨렸다고 주장하였다.³⁷⁾

북한에서 전자악단은 1985년 보천보전자악단이 처음 창립되었다. 하지만 실제 멤버들이 영입되는 시점은 1980년대 후반이고, 북한 내 공식적인 첫 데뷔 공연 진행 또한 1990년 들어서이다. 북한은 보천보 전자악단을 창립하면서 전자악기를 처음으로 도입하였기 때문에 연주 법이나 기기조작법 등 전자악기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음악을 소화할 수 있는 전문예술인 양성은 중요한 문제였다. 이때 보천보전자악단 소속배우들은 악단의 창립을 위해 어린배우들을 발탁하여 전자음악에 대한 다양한 시도와 함께 체계적인 훈련과 연습과정을 거쳐 공식 활동을 준비하였다.³⁸⁾ 김정일은 보천보 전자악단의 창립과정에 대해 “보천보전자악단은 내가 1980년대부터 키워 왔는데 1990년대에 와서 은을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보천보전자악단 배우들은 10대의 나 어린 예술인들을 데려다 한 10년동안 키운 사람들인데 지금은 그들이 우리나라 음악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³⁹⁾라고 언급한 것과 같이, 악단들은 전자악단을 공식적으로 공개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연습과 훈련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창립시기와 활동시기가 다른 것을 알 수 알 수 있다. 또한 『조선신보』 기사를 통해 주요 배우들의 보천보전자악단 영입 시점을 확인할 수

37) 리차운 외, 『조선음악사』(평양: 예술교육출판사, 1994), 400~404쪽.

38) 김정일, “당의 두리에 굳게 멎쳐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 나가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1995년 1월 1일), 『김정일선집』, 제1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6쪽.

39) 김정일, “당의 두리에 굳게 멎쳐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 나가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1995년 1월 1일), 『김정일선집』, 제1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6쪽.

있다. 김광숙은 1985년,⁴⁰⁾ 전혜영⁴¹⁾과 리분희⁴²⁾는 1988년에 입단한 것으로 주요 멤버영입시점을 언급한 내용에 따라, 창립 시기와 실제 활동시기가 달랐던 부분에 대해 해석이 가능하다.

보천보전자악단이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은 1985년 창립일을 한참 지난 이후인 1989년 진행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기간 공연에서이다. 이후 보천보전자악단은 1990년에 처음으로 단독 공연을 진행하면서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로동신문』은 대내 첫 음악회로 만수대예술극장에서 진행된 이 공연을 소개하며 “라지오나 텔레비존수상기에서 울려나오는 특색있는 노래들과 기악곡들을 통해서만 친숙해진 보천보전자악단, 들으면 들을수록 그 음악을 형상한 가수들과 연주가들이 못견디도록 보고싶어지던 보천보전자악단이 얼마전에 드디어 만수대예술극장에서 첫 음악회의 막을 올렸다”라고 밝혔다.⁴³⁾ 이를 통해 보천보전자악단의 공연은 1990년 7월 첫 공연으로 대내에 소개되기 이전까지는 라디오를 통해서만 음악을 보급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보천보전자악단은 수년간 훈련을 거쳐 북한 내 처음으로 전자음악을 전면에 내세우며 등장한 악단으로, 일본 전국순회공연은 악단의 첫 대외활동으로서 의미가 컸다. 또한 공연 당시 북한 대내적으로도 김일성 탄생 80주년, 김정일 탄생 50주년이었기 때문에 이를 기념하기 위한 특별공연의 성격도 띠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과 김정일 탄생 기

40) “어제의 연주가가 사랑을 받는 명가수로,” 『조선신보』, 1991년 9월 21일.

41) “웃음 가득, 사랑 가득 노래에 담아,” 『조선신보』, 1991년 9월 24일.

42) “다양한 예술적재능을 가진 새 세대 배우,” 『조선신보』, 1991년 10월 2일.

43) “우리식의 전자음악의 독창성과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는 자랑스러운 예술무대: 보천보전자악단의 공연에 대하여,” 『로동신문』, 1990년 7월 23일.

념일에 항상 축하기념공연을 진행하였고, 정주년⁴⁴⁾에 해당하는 국가 행사는 더욱 그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 대규모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했을 때 국가지도자의 기념적인 해에 북·일 관계의 전환을 맞이하며 북·일 국교정상화라는 외교적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를 부여했던 중요한 대외행사였다고 할 수 있다.

보천보전자악단의 일본 공연이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과거 평양학생소년예술단으로 일본을 방문했던 보천보전자악단의 몇몇 구성원들에 대한 감회와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방문공연에 참가했던 보천보전자악단 구성원 중 강금철(제1차, 손풍금 연주, 당시 10살), 김광숙(제2차, 전자기타 연주, 당시 15살), 전해영(제2차, 노래, 당시 10살), 리분희(제2차, 농악무, 당시 11살)는 제1·2차 평양학생소년예술단 일본 방문공연을 진행했던 구성원들이었다. 이에 당시 공연을 기억하는 일본 현지인들은 보천보전자악단이라는 새로운 그룹에 소속되어 일본을 다시 방문하는 이들에 대한 기대가 보천보전자악단 일본 공연에 더욱 의미를 부여했다.

보천보전자악단의 일본방문공연은 일조문화교류협회 주최, 아사히 신문사와 NHK, 도쿄도 후원으로 성사되었다. 공연은 1991년 9월 13일부터 10월 28일까지 46일간 도쿄 외 8개 지방에서 26회의 공연이 진행되었다. 여기에 참여한 북측 인원은 악단의 최상급 단장을 포함하여 부단장 리종오, 무대미술가 김용호 등 예술인 55명과 15명의 기자로 편성되었다. 북한은 보천보전자악단이 일본 공연 성과를 실황 녹화 방영과 공연 실황 영상 녹화물 등을 통해 대내에 대대적으로 선전하였

44) 정주년을 기념일 주년 끝자리가 0과 5로 끝나는 날을 의미 있게 맞는 것을 뜻한다.

<표 5> 보천보경음악단 일본 공연(1991.9.17.~10.17)

날짜	장소	시간
09.17 (화)	일본청년관(日本青年館) 센다가야(千駄ヶ谷)	밤(夜)
09.18 (수)	일본청년관(日本青年館) 센다가야(千駄ヶ谷)	낮(昼)·밤(夜)
09.19 (목)	전 일본(全日空)호텔 <디너쇼>	밤(夜)
09.20 (금)	도쿄조선문화회관(東京朝鮮文化會館)	밤(夜)
09.21 (토)	도쿄조선문화회관(東京朝鮮文化會館)	낮(昼)
09.23 (월)	미야기현민회관(宮城県民會館) 仙臺	낮(昼)·밤(夜)
09.25 (화)	히메지시 문화센터(姫路市文化センター) 히메지(姫路)	밤(夜)
09.26 (목)	고베국제회관(神戸國際會館) 고베(會館)	밤(夜)
09.27 (금)	고베국제회관(神戸國際會館) 고베(會館)	낮(昼)·밤(夜)
10.01 (화)	아스테루플라자 히로시마(広島)	낮(昼)·밤(夜)
10.04 (금)	시모노세키(下関) 마링호텔 <디너쇼>	밤(夜)
10.05 (토)	규슈후생연금회관(九州厚生年金會館) 오구라(小倉)	낮(昼)·밤(夜)
10.08 (화)	오사카후생연금회관(大阪厚生年金會館) 오사카(大阪)	낮(昼)·밤(夜)
10.09 (수)	오사카우편저금회관(大阪郵便貯金會館) 오사카(大阪)	밤(夜)
10.12 (토)	오사카조선문화회관(大阪朝鮮文化會館)	낮(昼)·밤(夜)
10.15 (화)	교토(京都)그랜드호텔 <디너쇼>	밤(夜)
10.16 (수)	교토회관(京都會館) 제(第)2홀 교토(京都)	밤(夜)
10.17 (목)	교토회관(京都會館) 제(第)2홀 교토(京都)	낮(昼)·밤(夜)

※ 개장시간(開場時間) - 오후 1시 30분, 밤-오후 6시/ 午後 1時 30分, 夜-午後 6時
 개연시간(開演時間) - 오후 2시, 밤-오후 6시 30분/ 午後 2時, 夜-午後 6時 30分

자료: “주체예술을 파시하는 전자음악의 화려한 무대,” 『조선신보』, 1991년 8월 28일.

< 표 6 > 보천보전자악단 일본방문공연 주요 레퍼토리

형식	제목
여성5중창	내 나라 제일로 좋아, 우리 자랑 이만저만 아니라고
여성독창(김광숙)	장군별, 비둘기야 높이 날아라, 생이란 무엇인가, 황금나무 능금나무 산에 심었소, 햇빛밝은 내 나라
여성독창(전혜영)	조국의 사랑은 따로워라, 휘파람, 노들강변, 처녀시절
여성독창(리경숙)	반갑습니다, 아리랑, 도시치녀 시집와요
여성독창(리분희)	풍년새가 날아든다, 너성은 꽃이라네
여성저음독창(조금화)	사회주의 지키세, 풍년을 노래하네, 아직은 말 못해, 군밤타령
여성2중창	밀양아리랑
남성기악중주	수령님 은덕일세, 농악, 옹헤야, 헝그리아 광상곡 No.2(Hungarian Rhapsody No.2)
일본 노래	푸른산맥(靑い山脈), 길동무(みちづれ), 북부지방의 봄(北쿠니の春), 쓰가루해협의 겨울풍경(津軽海峡の冬景色), 야스기부시(安來節), 소란 부시(ソーラン節), 세토의 새색시(瀬戸の花嫁), 담배집치녀(タバコ屋の娘), 원추리(忘れな草をあなたに), 어머니(おかあさん), 남이 그리워(君恋し), 영경귀 꽃의 노래(あざみの歌), 저 언덕 넘어서(あの丘越えて), 오늘도 웃음담고 찾아왔구나(今日も笑顔でこんにちは), 별빛왈츠(星影のワルツ)

자료: 박순녀·김초옥, 『조선음악년감(1992)』(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4), 339쪽 재구성.

다. 이에 보천보전자악단이 대내에서 파급력을 가진 것은 1991년 일본 공연에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보천보전자악단의 일본방문공연의 주요 일정과 레퍼토리는 다음과 같다.

일본 공연의 레퍼토리는 주로 북한 노래와 일본 노래로 구성되었다. 먼저 북한 노래로는 <내 나라 제일로 좋아>, <장군별>, <생이란 무엇인가>와 같은 수령과 당에 대한 충성노래, <휘파람>, <아직은

말못해>, <도시처녀 시집와요>같은 생활노래로 구성되었다. 일본노래는 대중적으로 유명한 가요와 전통 민요로 구성되었다. 소란부시(ソーラン節)와 야스기부시(安來節)⁴⁵⁾는 일본의 전통 민요이다. 일본에서 대중적인 인기를 끄는 곡들은 일본어로 불러 대중의 공감을 이끌어내고자 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일본 공연 레퍼토리 구성에서도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염두에 둔 우호친선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연임을 알 수 있다.

1991년 9월 13일에 개최한 재일본조선인대회에서 보천보경음악단(당시) 최상근단장은 연설에서 “동포 여러분! 지금 우리 조국에서는 모든 일이 아주 잘되어가고있습니다. 올해는 농사도 썩 잘되어 논배미마다 누런 벼이삭이 무겁게 드리웠고 그 어디서나 주체농법이 훌륭히 관철되어 랭습지로 일러오던 두만강류역에도 최근년간 볼수 없던 대풍이 들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팔순이 다 되신 고령이심에도 여전히 왕성한 정력으로 공장과 농촌을 현지도하시며 인민들의 행복을 꽃피워주고계십니다”⁴⁶⁾라고 언급하며 북한의 발전상과 김일성 김정일 치적을 언급하고 재일동포들에게 민족적 긍지와 자긍심, 조국애를 강조했다. 이처럼 보천보전자악단의 일본방문 공연이 재일동포 애국사업을 추동하는 역할의 일환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또한 『조선신보』는 일본 참여 의원들의 인터뷰에서 이 공연을 통해

45) 야스기부시는 1688~1704년경 일본 시마네현에서 처음 만들어졌다가 1830년대 선박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노래이다. 이 노래는 1910~20년대 인기를 끌었던 지방민요로 일본뿐 아니라 한국, 대만, 중국 동북부까지 전해졌다. “安來節,” 世界の民謡・童謡; <http://www.worldfolksong.com/songbook/japan/minyo/yasugibushi.htm>

46) “여러분들이 조국과 수령을 받들어나가는 충성의 길, 애국의 길에서 위훈을 떨칠 것을 축원한다,” 『조선신보』, 1991년 9월 18일.

<그림 2> 보천보경음악단 오사카 공연 장면



자료: “<공연에서 얻은 커다란 감동을 애국의 꽃으로 피워나가리> 오사카공연,” 『조선신보』, 1991년 10월 16일.

교류 확대와 국교정상화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강조하는 멘트를 보도하기도 했다. 이처럼 『조선신보』는 북한 대중악단의 일본방문공연에 대한 일본 유명 인사들의 반향을 실으며 친선음악 사절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교정상화라는 정치적 교섭에 앞선 북·일 간 우호친선 분위기 조성하고 북한에 대한 인식 제고의 기회로 삼으며 정치적 변화에 호응하는 여론을 조성하고자 했다.

일본방문공연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보천보전자악단의 전자악기는 일본 야마하(YAMAHA)사에서 제작한 전자오르간인 엘렉톤(Electone), 신시사이저(Synthesizer)는 야마하, 가와이(KAWAI), 롤랜드(Roland), 카시오(CASIO) 등 모두 일본 회사의 악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1995년 김정일이 만수대예술단과 한 담화에서 일본 악기는 조총련을 통해 수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천보전자악단은 창립을 준비할 당시 악기수입이나 연주법 교육 등을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이하 총련)이 관여한 사례가 있었던 바와 같이 총련은 보안과 접근성 측면에서 다른 나라보다 정보공유가 용이함에 따라 음악분야에서 해외음악의 트렌드를 살피고 관련 음악을 들여오는 것은 물론 악기 수입까지 지원

하며 계속해서 조력자의 역할을 담당해온 것을 알 수 있다.⁴⁷⁾

보천보전자악단의 창립과정을 살펴보면 일본 악기의 도입과 함께 일본 기술이 바탕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은 보천보전자악단의 창립을 위해 1980년대에 북한 음악가가 일본에서 전자오르간의 세팅, 소리 만드는 법, 연주법 등의 기술전수를 바탕으로 보천보전자악단 결성에 참여하였다고 설명한다.⁴⁸⁾ 『조선예술』에서는 김정일이 “전기 종합악기소리가 나게 조절해놓고 연주하는 것을 들어보면 일본에서 만든 전기종합악기로 연주하는것보다 더 듣기 좋다”고 언급하였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북한에서 전기종합악기를 자체적으로 제작하기 이전, 일본의 악기가 바탕이 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⁴⁹⁾

4. 2000년대 일본의 악기제재와 악단의 변화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1차 핵실험 강행에 따라 2006년 10월 14일 국제연합안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가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모

47) 만수대예술단의 일본악기 수입과 관련해 총련을 통한 것으로 보아, 총련은 북한의 악기수입에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정일, “예술은 철저히 인민을 위한 예술로 되어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만수대예술단 일군들과 한 담화(1995년 10월 28일),” 『김정일선집』, 제18권 증보판(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2), 312쪽.

48) 보천보전자악단 창립당시 악기수출 경로 및 창립배경에 대해서는 니시오카 쇼지(西岡省二)의 책에 익명의 음악 전문가 C를 인용하여 상세히 설명하였다. 西岡省二, 『「音楽狂」の国: 将軍様とそのミュージシャンたち』(東京: 小学館, 2015), 153~156쪽.

49) “전자악기를 조선음악에 복종시킨 우리 식 전자음악,” 『조선예술』, 제10호(1992), 27~28쪽.

든 회원국에 대한 대북 사치품 및 대량살상무기 관련 화물 등의 공급 중지가 발표되었고, 일본 또한 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였다. 제재대상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물자거래금지’였지만, 이례적으로 사치품이 금수조항에 포함되며 일본 일본경제산업성(經濟産業省)은 자체적으로 검토한 ‘대북 사치품 수출 금지조치 등에 대해(北朝鮮への奢侈品の輸出禁止措置等について)’⁵⁰⁾를 발표하고 10월 15일부터 북한의 사치품 및 대량살상무기 관련 화물 등의 수출금지 조치를 실시하였다. 다음은 일본무역경제협력국 무역관리과 안전보장 무역관리과에서 2006년 11월 14일 발표한 ‘대북 사치품 수출금지조치 등에 대해서’ 중 별첨으로 공개한 사치품 항목 내용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북한의 악기 및 악기소모품 수입은 일본 총련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다.⁵¹⁾ 특히 보천보전자악단이 사용했던 전자악기인 신시사이저, 엘렉톤 등은 일본 야마하, 롤랜드사의 악기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을 통한 악기수입 경로는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악기가 북한 내에서 체제유지를 위해 선전동음악을 전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악기는 결과적으로 체제를 강화한다고 간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일본 경제산

50) 경제산업성(經濟産業省) “北朝鮮への奢侈品の輸出禁止措置等について(2006.11.14.),” https://www.meti.go.jp/policy/external_economy/trade_control/01_seido/04_seisai/downloadNK/20061114presskitatyouzen.pdf

51) “만수대예술단에 악기소모품 같은 것은 모자라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수대 예술단에서 소련대공연조를 일본에 보냈는데 총련에서 그들을 통하여 3년분의 악기소모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으면 좋습니다. 만수대예술단이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자체로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김정일, “예술은 철저히 인민을 위한 예술로 되어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만수대예술단 일군들과 한 담화(1995년 10월 28일), 『김정일선집』, 제18권 증보판(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2), 312쪽.

<표 7> 보천보경음악단 오사카 공연 장면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대북 사치품 수출 금지 항목(2006.10.15.)

번호	수출금지항목	번호	수출금지항목
1	쇠고기(牛肉)	13	귀금속(貴金屬)
2	참치필레(まぐろのファイル)	14	귀금속세공(貴金屬細工)
3	캐비아(キャビア)· 그 대용품(その代用品)	15	휴대용정보기기(携帯型情報機器)
4	주류(酒類)	16	영상오디오기기(映像オーディオ機器)· 소프트(ソフト)
5	담배(たばこ)	17	승용차(乗用車)
6	향수(香水)	18	오토바이(オートバイ)
7	화장품(化粧品)	19	모터보트(モーターボート)· 요트 등(ヨット等)
8	가죽가방(革製バッグ)· 의류 등(衣類等)	20	카메라(カメラ)· 영화용기기(映画用機器)
9	모피제품(毛皮製品)	21	시계 등(腕時計等)
10	카펫(じゅうたん)	22	악기(楽器)
11	크리스탈글라스 (クリスタルグラス)	23	만년필(万年筆)
12	보석(宝石)	24	미술품(美術品)·수집품(收藏品)· 골동품(骨董品)

자료: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北朝鮮への奢侈品の輸出禁止措置等について,” https://www.meti.go.jp/policy/external_economy/trade_control/01_seido/04_seisai/downloadNK/20061114presskitatyoussen.pdf

업성이 발표한 ‘사치품정령대비표(「奢侈品」政令対比表)’는 4회 개정⁵²⁾되었는데, 가장 최근 개정판인 2017년 2월 22일 개정판에서는 사치품이 총 33건이며, ‘악기’는 사치품 항목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

52) 일본 경제산업성은 2006년 10월 15일 발표된 사치품정령대비표 이후 2007년 1월 1일(2006.11.14. 발표), 2012년 1월 1일(2006.11.14. 발표), 2016년 4월 1일(2016.3.29.) 발표, 2017년 2월 22일(2017.2.17. 발표) 총 4회 개정되었다. https://www.meti.go.jp/policy/external_economy/trade_control/01_seido/04_seisai/ki tachosen.html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강력한 대북제재가 이어지던 흐름 속에서 2008년은 김정일의 건강이상으로 후계체제 준비가 시급한 시기이기도 했다. 이에 후계자 선출과 새로운 후계자의 이미지창출을 위해 새로운 악단 창립이 요구되었다. 당시 북한은 세계적으로 전자음악이 쇠퇴하였음을 인식하였다. 북한은 2000년대부터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며 기악음악의 발전을 가져온 서양음악 연주자들을 바탕으로 전자악단이 아닌 서양악기를 기본으로 하는 삼지연악단과 은하수관현악단을 2009년 새롭게 창립하였다.

일본의 악기에 대한 제재조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012년 김정은은 모란봉전자악단(당시 모란봉악단), 2015년 청봉악단, 2018년 삼지연관현악단을 새롭게 창립하였다. 모란봉전자악단은 보천보전자악단을 계승하고 전자악기만으로 이루어진 ‘전자악단’을 표방하는 만큼 악단들의 편성에 전자악기는 필수적이었다. 2006년 일본의 악기금수조치 제재 상황이었지만 제재 이후인 2012년 7월에 창립된 모란봉전자악단(당시 모란봉악단)의 공연장면에서는 일본브랜드의 신시사이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그림 3>의 악기는 모두 일본회사 악기로, 상단의 메인 신디인 롤랜드사의 ‘팬텀(Fantom)’은 2001년, 하단의 세컨 신디는 코르그(KORG)사의 ‘트라이톤 프로(TRITON Pro)’는 1999년에 출시된 모델이다.

<그림 4>는 2018년 모란봉악단과 공훈국가합창단의 신년경축공연 장면이다. 모란봉악단의 2018년 공연에서도 일본 신시사이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모델은 일본 롤랜드사의 ‘주피터-80(Jupiter-80)’으로 2011년 출시된 모델이다. 일본이 2006년 사치 품목으로 악기를 금수조치 한 이후에도 북한은 계속해서 일본회사의 전자악기를 수입한

<그림 3> 모란봉악단 시범공연
(2012)



<그림 4> 모란봉악단 신년경축 공연
(2018)



자료: “모란봉악단시범공연.” <https://www.youtube.com/watch?v=p-iEiDrxJlM&t=2583s>

자료: “모란봉악단신년경축공연.” <https://www.youtube.com/watch?v=kX3QQHIZHOo>

것을 알 수 있다. 자세한 경로는 확인되지 않아 단정할 순 없으나, 일본에서 전자악기를 수입하기 시작했던 초기 전례를 비추어 봤을 때, 제재국면에서의 악기수급 경로에 조총련의 역할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5. 결론

이 글의 목적은 북·일 간에 진행되었던 음악교류를 통해 정치·외교적 관계 속에서 ‘음악’이라는 매개가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일 음악교류의 핵심이었던 전자악단을 중심으로 음악교류를 살펴보고 교류의 의미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1970년대 초 김정일은 세계적 전자악기 활용추세를 인식하고 김일성 우상화작업의 일환으로 창립된 만수대예술단 여성기악중주조에서 처음으로 일본 전자악기 엘렉톤을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전자음악을

시도하였지만 악기사용에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중단된다. 하지만 1973년 성사된 만수대예술단의 일본방문공연을 계기로 악기를 본격적으로 수입하며 전자음악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1970년대 말 당시 전자음악과 디스크는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었고, 1980년대 한국대중음악계 또한 영향을 받아 디스크풍 음악과 전자음악이 중심이 되었다. 김정일은 북한 청년들 또한 이전 세대와는 다른 감성과 문화적 취향을 갖고 있음을 인지하고 1980년대부터 ‘인민의 현대적 미감’과 ‘세계적 음악추세’를 반영한 대중적인 음악을 만들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1983년 왕재산경음악단과 1985년 보천보전자악단을 창립하지만, 전자악기 활용 기술과 전자음악의 방향성, 대중의 반응 등으로 오랜 기간 훈련과정을 거침에 따라 창립 직후의 공식적인 활동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90년대부터 본격적인 북·일 관계 개선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일본 여성 록 밴드 ‘쇼야’가 방북공연을 진행하게 된다. 북한은 재즈와 록을 반인민적이고 퇴폐적인 음악이라고 규정하면서 일본 록 그룹을 교류 차원에서 초청한 것은 모순적인 것이었다. 북한 내에서 비난하는 음악 장르와의 교류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었지만 이들의 방북공연 직후 보천보전자악단의 일본방문공연을 성사시킴에 따라 일본 대중가수와의 음악교류 공연은 북·일 국교정상화라는 정치적 목적과 함께 당시 북한 내 음악적 파격으로 나타날 수 있었던 북한의 새로운 전자음악의 도입에 명분을 부여할 수 있었다. 또한 이를 통해 세계 보편적 음악 장르가 북한 내에도 있음을 과시하는 기회로 활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조총련은 일본 악기 수입, 연주법 교육 등에서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이후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따라 국제적 제재가 이루어졌고,

이에 일본은 악기를 체제유지를 위한 선전선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고 대북 사치품 수출금지 항목에 ‘악기’를 포함시키며 수출을 중지했다. 북한 전자악기의 대부분은 일본제품에 의존하고 있음에 따라 일본의 악기수출 금지는 북한 음악 분야에 큰 타격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09년 클래식 서양악기 바탕의 오케스트라를 새로운 악단으로 내세웠다가, 2012년 김정은이 집권을 시작하면서 전자악단을 표방하는 모란봉악단(당시)을 창립하게 된다. 새롭게 창립된 모란봉악단은 일본브랜드의 신시사이저를 사용하였는데, 현재까지 일본의 악기금수조치제 상황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2011년 출시된 일본 브랜드 신시사이저 모델을 사용하는 모습에서, 제재국면에서도 금수조치와 무관하게 전자악기를 선전선동에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일 간 진행되었던 음악교류는 문화사절단을 통해 각국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외교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최우선적 목표였다. 기본적으로 북·일 간 음악교류는 북일 국교정상화라는 정치적 목적을 전제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과 더불어 북한은 일본 대중음악가수들의 방북공연 교류를 세계적 대중문화의 지표이자 새로운 음악도입의 명분으로 활용하였고, 북한 악단의 일본방문공연의 경우 대대적 홍보를 통해 대외적인 자국의 인식 전환의 계기로 활용하였다.

몇 차례 북한 악단들의 일본방문공연이 성사된 데에는 일본 국회의원, 전 지사, 언론계 인사들의 지원과 여론 형성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이를 통해 북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물론 북·일 국교정상화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면서 북한 악단들은 현지 인사들의 실질적 협력을 요청하는 매개로서 외교사절의 역할을 담당했다. 그럼에도 북·일 간 음악교류의 성사를 이끌고 일본 악기, 장비 등 각종 물자 수입을

가능하게 한 데는 무엇보다 조총련의 지원이 컸다. 이러한 역할은 현재 제재국면 속에서도 일정 부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 내 전자음악의 시도는 당시 세계 대중음악계의 흐름에 편승하기 위한 시도였다. 북한은 일본 대중음악가수들의 방북공연으로 기존 음악정책에 반하는 장르를 수용함으로써, 대내외에 일본 대중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대담하고 유연한 자세를 보여 주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 국교정상화에서 수교 상대국으로서의 면모와 함께 세계 보편적 음악과 견줄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북한의 전자음악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고자 했다.

보천보전자악단의 일본 공연이라는 음악교류의 장은 북한에서 전자음악이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기도 했다. 북한은 해외에서의 성공적인 공연과 북·일 교류라는 정치적 성과를 통해 전폭적인 반향을 이끌어냄을 선전하였고, 보천보전자악단에 대한 북한 인민들의 관심은 그 대로 이어질 수 있었다. 또한 보천보전자악단의 일본 공연은 일본 국민들에게는 북한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로 삼았고, 재일교포들에게는 북한의 발전상과 북한 지도자들의 업적을 강조하며 민족적 자긍심과 조국애를 불러일으키고자 했다. 이를 통해 북·일 간 음악교류의 종국적 목표인 북·일 국교 정상화라는 정치적 이벤트에 앞서, 국가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조응하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 접수: 7월 31일 / 수정: 8월 11일 / 채택: 8월 12일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1) 단행본

- 김정일, 『음악예술론』(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리차운 외, 『조선음악사』(평양: 예술교육출판사, 1994).
-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음악의 원로 김정일』(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8).
- 박순녀·김초옥, 『조선음악년감(1992)』(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4).
-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력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1974)』(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74).
- _____, 『조선중앙년감(1991)』(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91).

2) 논문

-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면한 정치, 경제정책들과 몇가지 국제문제에 대하여: 일본<요미우리신봉> 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2년 1월 10일),” 『김일성전집』, 제48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3).
- _____, “당의 두리에 굳게 멍처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 나가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1995년 1월 1일),” 『김정일선집』, 제1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 _____, “예술은 철저히 인민을 위한 예술로 되어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만수대예술단 일군들과 한 담화(1995년 10월 28일),” 『김정일선집』, 제18권 증보판(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2).
- _____,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온 만수대예술단 성원들과 한 담화(1973년 9월 21일),” 『김정일전집』, 제2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8).
- “만수대예술단 절찬속에 공연,” 『음악세계』, 통권 13호(1994).
- “본보기예술단체의 핵심으로 꾸려주시어,” 『조선예술』, 제9호(2009).
- “전자악기를 조선음악에 복종시킨 우리 식 전자음악,” 『조선예술』, 제10호(1992).

3) 신문

- “<공연에서 얻은 커다란 감동을 애국의 꽃으로 피워나가리> 오사카공연,” 『조선신보』, 1991년 10월 16일.
- “내외의 커다란 관심속에 보천보경음악단의 일본공연 박두,” 『조선신보』, 1991년 8월 28일.
- “다양한 예술적재능을 가진 새 세대 배우,” 『조선신보』, 1991년 10월 2일.
- “사실: 보천보경음악단을 혈육의 정으로 맞이하자,” 『조선신보』, 1991년 7월 13일.
- “어제의 연주가가 사랑을 받는 명가수로,” 『조선신보』, 1991년 9월 21일.
- “여러분들이 조국과 수령을 받들어나가는 충성의 길, 애국의 길에서 위훈을 떨칠 것을 축원한다,” 『조선신보』, 1991년 9월 18일.
- “우리식의 전자음악의 독창성과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는 자랑스러운 예술무대: 보천보전자악단의 공연에 대하여,” 『로동신문』, 1990년 7월 23일.
- “웃음 가득, 사랑 가득 노래에 담아,” 『조선신보』, 1991년 9월 24일.
- “일본녀성전자악단 공연 진행,” 『평양신문』, 1991년 6월 12일.
- “일본녀성전자악단 귀국,” 『평양신문』, 1991년 6월 14일.
- “일본녀성전자악단 도착,” 『평양신문』, 1991년 6월 8일.
- “일본방문공연을 우리의 힘으로 꼭 성공시키자: 보천보전자악단 공연을 관람,” 『조선신보』, 1991년 7월 25일.
- “일본의 수도 도쿄 도의회가 결의채택,” 『조선신보』, 1991년 7월 13일.
- “일조국교정상화를 위한 운동을 촉진시키자,” 『조선신보』, 1991년 6월 24일.
- “일조국교정상화요구의 일본국민여론을 반영,” 『조선신보』, 1991년 6월 24일.
- “조선대외문화련락협회와 일조문화교류협회 사이의 문화교류에 대한 합의서가 조인되었다,” 『로동신문』, 1972년 9월 26일.
- “주체예술은 인류가 쌓아올린 예술탑의 정점에서 찬연히 빛나는 황금별” 『조선예술』, 11호(1973).
- “주체예술을 과시하는 전자음악의 화려한 무대,” 『조선신보』, 1991년 8월 28일.
- “찬연한 빛을 뿌리는 우리의 주체예술!: 관람자 20만명,” 『로동신문』, 1973년 9월 22일.
- “日本のロックバンドが初公演,” 『조선신보』, 1991년 6월 24일.

2. 국내 자료

1) 논문

- 김태운, “북한의 대일정책 변천과 그 특징에 관한 연구,” 『정치정보연구』, 제7권 2호(2004), 108-134.
- 박창건,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북일관계의 변화: “상황적 경직화”에서 “전략적 유연화”로 전이된 교섭 외교,” 『한국과국제정치』, 제31권 2호(2015), 29~52쪽.
- 손기섭, “일본의 대북한 국교교섭의 정책결정: “실력자정치”에서 “관저정치”로,” 『일본연구논총』, 제25권(2007), 33~70쪽.
- 신정화, “김정일 정권의 대일 정책: 「로동신문」과 「조선신보」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시민윤리학회보』, 제24권 1호(2011), 177~194쪽.
- _____, “북한의 국가전략과 북일관계,” 『북한연구학회보』, 제12권 2호(2008), 157~177쪽.
- _____, “일본 외교의 변화와 대북정책: 중핵국가로서의 영향력 확대,” 『일본연구학보』, 제38권(2013), 277~298쪽.
- 오일환, “북한 핵·일본인납치 문제 관련 기술의 분석,” 『한일관계사연구』, 제30권(2008), 351~384쪽.
- 이기완, “김정은 정권의 대일 접근과 북일관계,” 『국제정치연구』, 제19권 2호(2016), 177~198쪽.
- 이면우, “북일간의 수교교섭 전망: 제1회 포괄병행협의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일군사문화연구』, 4권(2006), 163~191쪽.
- 임상순, “납치문제에 대한 일본의 전략과 북한의 대응,” 『현대북한연구』, 제16권 2호(2013), 41~85쪽.
- 임재형, “북·일관계의 주요 결정요인과 특징,” 『분쟁해결연구』, 제2권 1호(2004), 93~123쪽.
- 진진호,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과 북한의 체제전환,” 『국제정치연구』, 제21권 2호(2018), 131~155쪽.
- _____,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일본의 대응전략 분석,” 『한일군사문화연구』, 제29권(2020), 5~29쪽.
- 정영철, “북일관계의 과거와 현재: 명분과 실리의 외교전략,” 『북한연구학회보』,

제9권 1호(2005), 157~184쪽.

조은일, “일본 아베 정권의 대북정책: 현황과 전망,” 『한일군사문화연구』, 제27권(2019), 87~113쪽.

진희관, “북한의 대일인식과 재일총련 정책 변화 연구: 『로동신문』기사목록(1946~2010) 분석과 50년대 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제25권 1호(2013), 361~396쪽.

최은미, “북일 납치문제에 대한 아베내각의 인식 및 방침 변화 분석: 「소신표명연설」과 「시정방침연설」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25권 4호(2019), 109~138쪽.

최희식, “일본의 정치변동과 대북정책,” 『한국정치연구』(2010), 제19권 1호, 205~231쪽.

하승희, “북한의 악단 변화 연구(1945~2018)”(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1~364쪽.

3. 국외 자료

1) 단행본

西岡省二, 『「音楽狂」の国: 将軍様とそのミュージシャンたち』(東京: 小学館, 2015).
ファンキ-末吉, 『平壤6月9日高等中學校.輕音楽部北朝鮮ロック.プロジェクト』(東京: 集英社インターナショナル, 2012).

2) 기타

경제산업성(經濟産業省), “北朝鮮への奢侈品の輸出禁止措置等について,”
https://www.meti.go.jp/policy/external_economy/trade_control/01_seido/04_seisai/downloadNK/20061114presskitatyouzen.pdf

쇼야(SHOW-YA) 공식홈페이지, <https://show-ya.jp/biography>.

모리 토모오미(Tomoomi Mori), “북일 문화교류: 1973년 만수대예술단 일본 순회 공연 사례,” 『SNUAC다양성+Asia』, 제4호(2019), <http://diverseasia.snu.ac.kr/?p=2584>

“일본 <<미라이샤>> 편집국장을 만나주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1973.9.30),”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http://www.chongryon.com/ss/comp/w14/w14.html>

“모란봉악단 시범공연,” <https://www.youtube.com/watch?v=p-iEiDrxJlM&t=2583s>.

“모란봉악단신년경축공연,” <https://www.youtube.com/watch?v=kX3QQHIZHOo>

“安來節,” 世界の民謡・童謡, <http://www.worldfolksong.com/songbook/japan/minyo/yasugibushi.htm>

The Utilization of Electronic Music Bands in North Korea-Japan Relations

Ha, Seunghee (Dongguk University)

In this article, in order to explore how the medium of “music” worked in political and diplomatic relations through the music exchange between North Korea-Japan, I examine music exchange, focusing on electronic music, which has been the core of the music exchange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The most important goal of the music exchange in North Korea-Japan relations was to achieve diplomatic and political objectives through the respective cultural missions in accordance with the interests of each country. Music exchanges were basically premised on the political purpose of normalizing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Japan and North Korea. In addition, on the one hand, North Korea used the exchange of performances by Japanese pop music singers as an indication of its global popular culture and as a pretext for introducing new music to its own nation; on the other, in the case of performances by North Korean bands in Japan, it promoted North

Korea's international status and used these as an opportunity to change other's perception of the country. North Korea tried to show boldness and flexibility both at home and abroad by embracing genres that run counter to existing music policies. Through this, the government tried to show off North Korea's electronic music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with the confidence that the cultural production could be compared to world music. Through this, it can be said that the government tried to create an atmosphere that was compatible with the political intentions of the nation prior to the political event of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Japan and North Korea, which was the ultimate goal of music exchange between the two countries.

Keywords: musical exchange, musical politics,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Mansudae Art Troupe, Wangjaesan Light Music Troupe, Bocheonbo Electronic Band, electronic music